

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
보도자료

 세계경제연구원
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

보도일시 배포 즉시

배포일시 2012. 10. 10(수)

담당자 세계경제연구원

연락처 02-551-3334

igenet@igenet.com

**Peter A. Petri 미국 Brandeis대학 교수 초청 글로벌 무역관련
제 목 : 특별강연회, 10월11일(목) 07:00-09:00 롯데호텔 에메랄드룸4(3층)**

□ 세계경제연구원(이사장: 사공 일)은 10월 11일 미국 Brandeis대학 Peter A. Petri교수를 초청하여 “FTA와 아태지역 통합, 그리고 한국(FTAs, Asia-Pacific Integration and Korea)”이라는 제하의 조찬강연회를 개최할 계획

※ Peter A. Petri 교수는 국제무역, 금융, 투자, 국제경제통합 전문가로서 세계은행, UN, ADB,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정부에 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East-West Center의 선임연구원도 겸하고 있음

□ Petri 교수는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TPP 체결시 동지역에서 연간 2조불(약 222조원) 가량의 GDP 증가가 예상되고 아울러 침체된 세계무역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

※ TPP(환태평양경제협정, Trans-Pacific Partnership):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현재 미국, 호주, 브루나이, 칠레, 뉴질랜드, 말련, 페루, 싱가포르, 베트남이 참여중이며, 멕시코, 캐나다, 일본으로 확대 추진 중

○ TPP 체제 하에서 한국, 미국, 중국 등은 다양한 거시경제적 편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

- 한국 : 수출시장 확대, 상품 및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유입증가
- 미국 : 대외투자증가, 서비스 수출시장 확대 및 상품 수출 증가
- 중국 : 수출시장 확대, FDI 유입과 서비스 수입의 증가

- 다만, 지적재산권, 중소기업의 경쟁적 중립성, 서비스 부문, ISD(투자자-국가소송제), 노동기준 등은 장애요인으로 평가
- 기 타결 혹은 협상이 진행 중인 아시아 역내 다양한 FTA와 TPP의 협력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미·중 양자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FTAAP(아태자유무역지대)의 조속한 추진도 강조할 예정
- 한국무역협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동 강연에는 정책담당자, 학계 및 연구소, 무역업계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